


공동체 소식




### 5월 성모님의 달

계절의 여왕 5월!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성모님의 달입니다.  
캔사스 한인 성당 가족 모두 사랑 안에서 행복한 5월을 기원합니다

【실천사항】

1. 매일 묵주기도 바치기
2. 일주일에 한번이상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3. 일주일에 한번이상 평일미사에 참여하기



5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녜스)**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올리안나)** 이원준(요한) 가정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이가 여유로움으로 잠시 여행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왕이 민생을 살피듯 잠시 시찰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두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며, 모든 것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영광에 동참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승천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주님 승천 사건은 우리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당신과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희망을 두되 지금 나의 시선을 현재에 맞춰 충실히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입니다.그렇게 할 때 주님의 승천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주일은 “성령강림 대축일” 입니다.

다음 주일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심미사 때에 **성령철은** 표를 나누어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 복사단 입단식

오늘 11명의 아이들이 복사단에 입단합니다. 아이들이 거룩한 하느님 제단에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사단에 입단하는 아이들에게 축하를 합니다.

- 일 시 : 5월 20일(주일) 중심미사 때
- 장소 : 성당
- 대 상 : 안광민 야고보, 정병훈 보나파시오, 안광희 크리스토퍼, 문호진 안토니오, 김준영 요셉, 차서는 세라피나, 안지영 가타리나, 정예찬 미카엘, 이원준 요한, 문예나 안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8시) 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2012년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운 치유의 이뤄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나는 하느님의 희망이 되고 싶다.”  
- 일 시 : **6월 19(화) - 20일(수) 저녁 8시**  
- 강 사 : **정건석 프랜시스 신부**  
(어스틴 성 김대건 성당 주임신부 및 미중남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41	217	344, 161	137

주일미사 복사

	종 복사	향 복사
다음주일 (05/27)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정수한(베 드 로) 정예찬(미 카 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5/20)	김수연(올리안나)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최은미(아 네 스)
다음주일 (05/27)	최은미(아 네 스)	김태중(예레미야)
	박혜정(가타리나)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5/20)	지은경 리브가, 이대숙 사비나, 박정옥 수산나
다음주일(05/27)	김주연 세실리아, 김수연 올리아나, 안현숙크리스티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5월 13일>
- 미사참례 : 86명
- 주일헌금 : \$364
- 교 무 금 : \$740



부활 제 7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5월 20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평 일 :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한국에서는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중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회의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각 나라마다 홍보의 날을 제정하기를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7년 ‘홍보의 날’이 제정되었고, 한국에서는 1980년부터 기존의 ‘출판물 보급 주일’과 통합하여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 성화해설

신리 대전교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신리 소재.

신리는 박해시대의 교우촌으로 성 손자선의 생가이자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인 성 다블뤼 주교가 머물며 내포 지방의 선교활동을 지휘하던 주교관이자 교구청으로 사용된 초가집이 복원되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곳에서 다블뤼 주교는 초기 순교자들의 행적과 교회를 정리하고, 각종 교회서적을 집필·출판함으로써 근대적 출판 인쇄를 시작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병인박해 때 동료 선교사와 함께 인근 거더리에서 체포되어 보령 갈매곶에서 성 금요일에 순교하였다.

주호식 피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사도 1,1-11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



환 호 소 리 높 은 중 에 하 느 님 오 르 시 도 다 - 하 느 님 오 르 시 도 다.

- 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주님 불러라. 주님께서는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 ◎
-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오르시도다.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고를 타며 우리 왕께 노래를 하여라. ◎
- 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불러라. 하느님께서 못나라를 다스리시도다. 거룩하신 어좌에 앉으시도다. ◎

제 2 독서 : 에페 1,17-23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 마르 16,15-20 <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

### 말씀의 이삭

##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짧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젊은이의 특권인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꿈꾸던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에 매여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꾸는 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완성인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는 표현이 조금은 낯설고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말을 말씀 그대로 알아듣기보다는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 곁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셔서 영광중에 계신다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고백이었고, 이 믿음이 전승을 통해 의심할 바 없이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는 말은 공간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으로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로는 한계를 담고 있지만, 하느님의 영광 속에 계신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완성이 곧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이 처음 사람들 안에 오실 때 품으셨던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꿈이라는 것조차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무언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금은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어 갈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방법**” 에 대해 일러드릴까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 꿈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충고

1. 계획을 눈에 가시화 하라. (계획표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라.)
2. 세운 계획을 세분화하라. (분기별, 월별, 주간별, 일별)
3. 망설이기보다는 실행에 옮겨라.
4. 내가 세운 그 계획을 고정시켜라. (결코, 남과 당신이 같아질 필요는 없다.)
5. 실패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이 실패를 통해 이루어졌다.)
6. 매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7. 자신과 결코 타협하지 말라.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다.)
8. 장애물을 미리 겁내지 말라. (닥치면 해결의 길은 항상 있다.)
9.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10.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라. (늘 그렇게 격려하라.)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 함께 나누어요

## 최후의 1분

금광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금맥을 찾아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금맥을 찾아 나서 지 몇 달이 지난 뒤에 황금이 묻힌 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성공담을 늘어놓자,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무사히 채굴기를 사가지고 금광으로 갔습니다. 금은 자꾸만 쏟아져 나왔고 거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맥을 따라가던 중 금맥이 뚝 끊어지더니 흙덩이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랐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의 무지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채굴을 단념한 그는 채굴기를 고철상에 팔아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굴기를 산 상인은 궁금했습니다. 그 좋은 금맥이 것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던 말인가? 상인은 광산기사를 초청하여 산의 특성을 조사해본 결과 금맥의 단층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인이 찾아낸 금맥의 단층은 맨 처음 사람이 중도에 포기했던 3미터 밑에 있었습니다. 고철상은 그 광산에서 나온 금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사람이 좌절의 순간에 광산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면 행운은 그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1분’ 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발만 더, 1분만 더’ 라는 신념으로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길이 열립니다.



### 교부들의 신앙

##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주교

폴리카르푸스는 스미르나의 주교로서 신자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주교는 그의 서간들 안에서 후배 폴리카르푸스주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후대의 교부들인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에우세비우스는 폴리카르푸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레네우스주교는 폴리카르푸스가 사도들의 제자였다고 증언하고, 테르툴리아누스는 폴리카르푸스가 특히 사도요한으로부터 주교로 임명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폴리카르푸스의 제자였던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소년시절에 폴리카르푸스의 설교를 들었다고 전하면서, 그의 스승이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폴리카르푸스 주교가 사도들과 직접 연관이 있었던 분으로서 사도교부의 범위에 속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폴리카르푸스 주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숭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잡혀가 여러 문초를 당한 후 화형선고를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장렬한 순교장면은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에 기록으로 남아있다. “전집 정관이 그에게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소. 그리스도를 모독하시오.’ 하고 다그쳐 경고하자, 폴리카르푸스는 대답하였습니다: ‘여든여섯 해 동안 나는 그분(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순교록 9,3). 마침내 폴리카르푸스 주교는 스미르나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어 장작더미 위에서 목숨을 바쳤다. 순교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장작더미를 태우려고 준비한 도구들이 곧바로 그의 주위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못 박으려고 하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두시오. 나에게 불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디어 내는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못 박지 않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큰 양떼 가운데 살진 숫양이 희생 제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번제물로 준비되었듯이, 그의 손은 등 뒤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당신께서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과 권능들과 모든 피조물과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의인의 하느님이시여, 저를 이 날과 이 시간에 함당하다고 여기셨으니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순교자들 가운데에 동참하고,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삶인 부활을 위하여 당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미리 마련하시고 계시하셨으며 지금 이루신 대로 오늘 저를 순교자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살인 희생제물로 당신 앞에 받아 주옵소서. 이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 영원한 하늘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성령과 함께 당신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가 ‘아멘’하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 불을 맡은 사람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적 이야기들을 보존하였습니다. 배의 돛이 바람을 가득 안고 불룩해지듯이 불은 아치형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그의 몸은 타지 않고 빵이 구워지듯이, 또는 용광로에서 금과 은을 정련하듯이 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향내나는 유황이나 다른 값진 향료들과 같은 그러한 향기를 맡았습니다”(순교록 13,4-14,2). 교회는 그의 천상탄일인 순교축일을 2월 23일에 지낸다. 폴리카르푸스의 필립피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그의 순교기록은 우리말로 본도출판사에서 2002년에 펴낸 [교부문헌총서] 제 12권에서 잘 읽어볼 수 있다.